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어 대한민국호가 나아가야 할 길



주식회사 흥아 부회장
손이태

‘경제 살리는 대통령’을 내세운 새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2개월 동안 새 정부는 규제를 푸는 다양한 경제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치솟는 국제유가, 요동치는 국제환율, 식량가격 폭등, 높은 원자재 가격 등에 발목을 잡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성장이나 도태냐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지난 시절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온 세계가 우리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하여 자국의 국가경제 성장을 도모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IMF도 경험했고 여전히 자원빈국이라는 약점과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강대국의 대열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율이 감소해 왔다.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청년실업이 증가하여 산업현장은 점점 노령화 되어가고, 수출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줄고 기업들은 해외탈출을 가속화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난국에서 ‘대한민국호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부, 기업 모두 핵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구심점으로 삼아 각계각층이 일치단결하여 올인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풀고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경제는 말로만 살리자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올해에는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식량가격도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12위 경제대국 중에서 가장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자원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과 내부적으로도 인재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선진국 도약을 위해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투자유치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얼마 전 해외순방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실리를 앞세운 세일즈 외교에 심혈을 기울인 노력으로 11억8천만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하였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오늘날에는 투자유치가 가장 큰 이슈가 될 만큼 경제 살리기에 투자유치는 필수적이다.

두 번째로 한국기업의 CEO들은 더욱 분발해야 한다.

오늘날 최고경영자의 역할은 지대하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은 기업의 내외부에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수의 사업 창출에 힘쓰고, 장차 기업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올해 와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자원과 원자재 확보에 더욱 전념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임시방편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길게 멀리보고 해외에 원자재 기지를 확보해야 한다. 당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련 있는 업체끼리 공동구매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에 자원기지를 개발, 구입하는데도 적극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고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선진국형 기업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기업도 사회도 더욱 발전하려면 우리경제의 기반이 튼튼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해 협력하는 문화, 서로 배려하는 노사관계, 정치적 안정,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사회의 양극화 극복을 위한 경제적 접근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내부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허부가 튼튼하게 받쳐 주어야 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 때문에 중소기업의 납품거부 현상에서 보듯이 경제 여건이 어려울 때에도 경제가 튼튼하게 나아가려면 우리의 성장의 밑 부분을 이루고 있는 각 부분에 대한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자

한국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에 왔다. 우리 모두 자신을 신뢰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한민국호가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